

전북도민, 학교·교육청 청렴도 높게 평가

도교육청, 학부모·건설업 등 관계 경험자 1,490명 설문조사 실시 결과 68.3% 답변

전북도민은 도내 학교와 교육청의 청렴도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효한 도교육청이 전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위더스HR 컨설팅에 의뢰해 학부모와 건설업 등 관계 경험자 1,49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빈번한 부패 유형을 묻는 질문에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21.1%), ▲금품 수수(10.6%), ▲공금 횡령 및 예산 유용(8.4%)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 1년간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20명인 1.3%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다.

도민들은 도교육청의 부패 방지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교육청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묻는 질문에 56.2%는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57%는 '향후 전북교육청의 부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8.3%가 '교육청이나 학교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변했다.

'부패했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했으며, 23%는 '보통'이라고 대답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청렴수준 점수는 76.2점으로, 지난해 58.9점보다 17.3점 상승했다.

응답자들은 분야별 청렴 수준을 묻는 질문에 ▲방과후학교 72.9점, ▲학교급식 69.1점, ▲물품 및 용역 계약 68.2점, ▲학원 관리 감독 65.7점 순으로 답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3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지원청별로 청렴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읍교육지원청이 10점 만점에 8.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전주교육지원청(8.28점), 진안교육지원청(8.14점), 남원교육지원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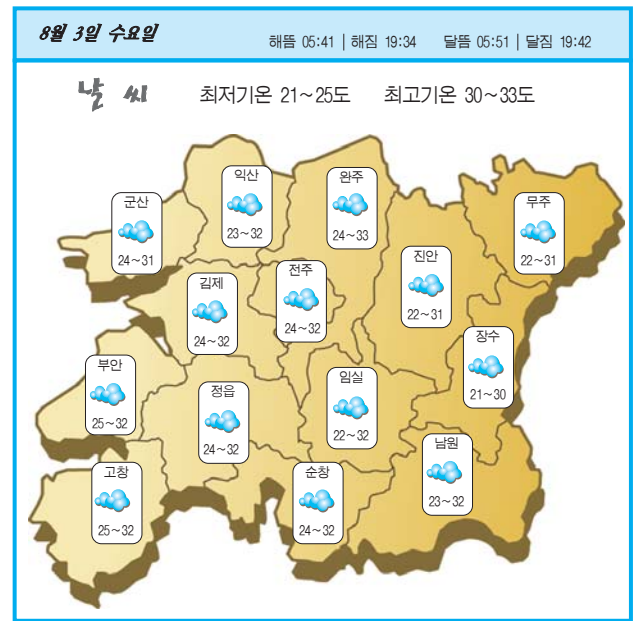
(8.03점), 군산교육지원청(8.0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육지원청의 평균 청렴 수준 점수는 8.07점으로, 지난해 7.34점에 비해 상승했다.

이번 전하 여론조사는 5월19일부터 6월23일까지 학부모 783명, 관계 경험자 등(건설업, 급식업, 여행업, 방과후강사) 707명 등 총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육행정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수치가 나아졌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재외동포 청소년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 주최 오늘부터 12일까지 미국·프랑스·독일 등 6개국 24명 참석 전통문화전당·한옥마을 일원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에서 한국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배운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주관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12일까지 10일간 11세~15세의 미국,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2~3세 재외동포 청소년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옥마을 등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재외동포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전주시가 사람, 생태, 문화,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 6기 후반기 7대 핵심프로젝트 중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문화특별시로 도약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업이다.

이들은 10일간의 일정동안 한글교육과 함께 한옥마을 투어, 풍물·판소리·탈춤 교육, 도자기·비빔밥·한지 만들기 체험, 전통예절교육 등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배우게 된다. 또, 전주시 초·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수업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특히 한글교육은 전주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기존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음악과 미술, 마술, 스토리텔링,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외국어를 좀 더 친숙하게 배울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 비비오와 함께 K-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 인증취소 처분 현장. 위조사서로 불법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 80대 모델 8만 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2일 오후 경기 팽택 아우디폭스바겐PDI센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팝 듣고 배워보기, △'꼬마썰매' 강령 탈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한옥과 한복, 한식 등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보존·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글로벌 문화특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주부성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자산과 옛 길 등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또한 시는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된 서문과 동문, 북문 등 전주부성 3대문 복원과 전라감영 1단계 복원 후 2단계 복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는 역사적인 흔적들이 도시 곳곳에 새겨있는 유서 깊은 전통문화도시이자 한옥과 한복, 한식 등 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며 "전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전북교육청은 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제정된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편의지원 조례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출연사업 관리감독, 예산의 확보 및 출연, 그 밖에 출연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출연사업 수행계획서 수립,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과 사후관리,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보조공학기기·장비 발주 또는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교육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장애인공무원 가운데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일자리발굴전담팀 운영

고용노동부전주지청(지청장 고광훈)은 상시적으로 '일자리발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발굴전담팀은 고용센터 취업지원팀내에 구인개척 등 구인서비스 업무경험이 풍부한 고용지원관 2명을 배치, 중점취업지원 대상기업을 직접 방문해 채용계획 파악 등 일자리 매칭을 강구한다.

또한 중점 취업지원 대상기업에서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워크넷 사용법 설명, 구인신청서 접수를 대행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참가희망 여부 확인 후 취업알선 및 채용지원서비스 등 제공 계획을 안내한다. 특히 직무내용 등 세부 구인내용

은 물론 서류검토나 면접과정에서의 중점 평가기준 등을 확인하여 채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발굴전담팀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장 88개소 방문하여 필요로 하는 인력160명을 채용 지원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고광훈지청장은 "강소기업, 선도기업 등 우량기업 대상으로 중점 취업지원 대상기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 생생한 현장감 있는 기업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발굴전담팀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청결·세상

같은 마음의 에너지 절약이 모두의 미래가 됩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 온실가스를 줄이는 모두의 에너지절약이 지구를 살립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여름철 실내온도 26℃로 절약은 더하기



실내조명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낭비는 줄이기



도서지역을 신재생 에너지로 희망은 두배로



친환경 전기차보급으로 기쁨은 나누기



전라북도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